

# 학교구성원 인권실태 조사 대상 확대

### 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따라 학생·교원·학부모까지... 22일까지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초4~고3)·교원·학부모까지 확대된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4월 28일 제정된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

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권 정책 관련 기초 자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문항은 크게 3개 항목으로 △2023 한 해동안 내가 경험한 인권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 의식 등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인권침해 및 교

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도 포함돼 있어 교원의 인권실태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가 추가됐다.

한편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QR코드나 URL 접속 후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2023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는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내년도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8일까지 'WE-BEST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7~8일 이틀간 WE-BEST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일 대학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임성익 JB지산학협력단 사무국장, 조덕현 기전대 LINC 3.0 사업단장, 이진엽 군장대 LINC 3.0 사업단장, 가족회사 임직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행사는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남천현 총장 축사와 제20회 캡스톤디자인 및 어드벤처디자인 경진대회 시상, 우수 가족회사 시상, LINC 3.0 사업 우수 성과 발표, 산학협력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세기종합환경 외 10개 기업이 우수 가족회사로 선정됐다.

남천현 총장은 "올해 교육부의 LINC 3.0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를 획득한 우리 대학교는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의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가족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역할과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 지역현안 해결 및 ESG 실현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4일(현지시간) 보르도몽테뉴대학을 방문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리오넬 총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교류와 국제 공동연구 등 폭넓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전북대, 프랑스 주요 대학과 연대 강화

### 유학생 5000명 유치 위해... 보르도공대·몽테뉴대학 등과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유학생 5천명 유치 실현을 위해 프랑스 주요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지난 4일부터 열흘 간 유럽 주요 대학을 찾아 긴밀한 연대 구축에 나섰다.

프랑스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프랑스 핵심 연구중심대학 중 하나인 보르도공과대학(Bordeaux INP)을 찾아 이 대학 Mejid Azize 국제처장 등을 만나 공학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와 방위산업, 반

도체 분야 육성 방안을 비롯해 스마트 팜, 신재생에너지, 컴퓨터과학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 교류를 위한 세부협정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이날 오후 보르도몽테뉴대학(Bordeaux Montaigne University)을 방문해 이 대학 리오넬 라르(Lionel Larre) 총장을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 학생교류와 국제 공동연구 등 폭넓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보르도몽테뉴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다수가 함께해 양 대학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실제로 보르도몽테뉴 대학은 내년 9

월 정식으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사업의 글로벌 프로젝트 중 하나인 'JENU 국제센터'를 이 대학에 설립해 한국어 강사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양 총장은 폐사시 교육부 시장을 만나 전주시와 폐사시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등 지방정부 간 교류의 가교 역할도 했다.

양오봉 총장은 "유럽 방문 첫날부터 프랑스 주요대학과 긴밀한 교류협력의 성과를 내 매우 기쁘다"며 "유럽 방문 기간 동안 더 많은 대학과 기관을 찾아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전북대 유학생 5천명 유치의 기반을 닦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제5차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포럼'이 지난 6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 연구센터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전북대학교 LINC 3.0 바이오헬스케어 ICC 및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섬유 의료기기개발 융·복합과제 발굴'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 해당 분야 교수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민호 교수(치대 치의학과)의 '탄소섬유에 대한 이해와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비롯해 장용석 교수(치대 치의학과)의 '나노 탄소소재의 광열효과를 이용한 스마트 약물전달기술', 송준희 교수(공대 융합기술공학부)의 '수퍼흡수 복합재료의 제조와 응용 및 융·복합과제를 통한 교수 협동조합 창업 방안' 등을 통해 의료기기 국산화와 필요성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남희 책임교수(전북대 기록관리학과)는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융·복합과제 발굴과 실질창업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마이크로 전공 기반 교육과정 확산 학생 공감대 형성

### 전주대, 자기설계연계 전공 교육과정 공모 시상식... 목표성 등 기준 대상·최우수상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7일 대학 본관 점검실에서 제2회 자기설계연계전공 교육과정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마이크로전공 기반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공모에 출품된 여러 가지 새로운 전공 중에서 목표성, 실현 가능성, 진로 분야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 시상과 함께 장학금이 전달됐다.

대상을 받은 홍민표 학생(영화방송학과 2년)은 "거대화되고 복잡해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저작권 문제와 AI, 제작, 배급 등의 공학·경영적 측면을 접목해 전공을 설계했다"며 "진로 분야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남은 대학 생활의 학업 계획도 재점검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재학 중에 전공공 외의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일반학과, 연계-융합전공), 부전공(일반학과, 융합전공) 혹은 2개 이상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전공 기반 교육과정을



전주대학교는 7일 대학 본관 점검실에서 제2회 자기설계연계전공 교육과정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구축함으로써 학생이 마이크로전공이라는 모듈(블록) 단위로 학위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기설계전공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진로, 취업, 창업 등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대 황인수 교육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직무·진로 중심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을 확대해 급변하는 산업

과 기업 수요에 맞춰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우리학교 급식 '최강 히어로' 지구 살리는 채식으로 탄소중립

### 도교육청,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 수상작 선정 그림일기 유준형·캠페인 송진아 등 대상 차지

전북도교육청은 2023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슬로건(초·중·고생 및 교직원), 캠페인 사진(초·중·고생 및 교직원, 단체전), UCC(초·중·고생 및 교직원, 단체전) 등 5개 분야에서 총 746점이 접수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주제성, 창의·독창성, 표현력, 활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9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은 △그림일기 유준형(청명초 3) △포스터 김지수(전주서일초 6)·김동현(화정중 2) △슬로건 윤지윌(전주서신중 1) △캠페인 사진 송진아(문창초 교사) △UCC 신립초(이하빈 외 6명)가 차지했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상과 상금 또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바른 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홍보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 그림일기 (청명초 유준형작)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 캠페인 사진 (문창초 송진아 교사작)

## '내일은 학부모가 주인공'

### 도교육청, 9일 전북 학부모 한마당 행사 개최 홍보·전시·체험마당 등 구성 프로그램 다채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9일 창조나래 야외마당에서 2023년 전북 학부모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학부모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가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크게 홍보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 △지역별 학부모회 활동 사례 전시 및 공유 △VR 체험 △책이랑 샘이랑 △가족 캐리커처 △다용도 우드 냄비받침 만들기 △심폐소생술 △다육이 화분 심기 등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계란빵·어묵·부침개 등의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며, 톨툴 게임 및 다양한 경험추첨도 이뤄진다.

한편 도교육청과 전북학부모회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학부모 한마당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올해 우리 학부모회는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학교와 소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부모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부모에 최신 진로·진학 정보 제공

### 도교육청, 내일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9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층 온누리홀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접수 시작 3일 만에 신청 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담당자와 맞춤형 대입 준비 방향을 안내해 줄 전북 대입진로진학지원단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문제, 고교학점제

운영, 진로 선택의 기준, 학과 선택에 따라 준비해야 할 과목, 수능을 통한 진학 방법, 지역인재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전형, 진로 설계를 위한 부모의 역할 등이 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는지, 또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전북교육청은 진로·진학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교육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